



주 제:	“거저 받았으니...”	“연중 제 11 주일”	2008년 6월 15 일
복음 묵상:	[마태 9,36-10,8]	[출애 19,2-6 가]	[로마 5,6-11]

복음선포 사명을 잊었거나,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주저하고, 교리를 모른다거나, 용기가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면 일손부족을 어떻게 메꾸어야 하겠습니까?
 선교의식도 별로 없고, 알고 있는 교리지식도 변변찮고, 그렇다고 교리공부시간을 마련해도 시간도 없고 다른 일들로 바쁘니, 미사만 나오면 됐지 왜 자꾸 일을 만들어 귀찮고 힘들게 하는가? 그냥 조용히 기도나 하게 내버려두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 일은 서로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입니다. 생기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한 번 맡으면 다음 말을 사람을 찾을 수 없어 마냥하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한 두 사람에게 너무 과한 짐을 맡기고, 게다가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텃공론은 많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2등은 할 텐데 공연히 나서서 구설수에 오르고, 자기 시간은 시간대로 없어 허둥대기 일쑤였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내 집 일을 서로 나눠서 자기 역량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전기 스위치 내리고, 성당 내 의자 정리하고, 쓰레기 치우고, 틈나는 대로 페인트칠을 하고, 마당에 나와 풀을 뽑습니다. 어떤 이들은 준비하고 계획하며, 하느님 나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기 몫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전례에 적극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성령께 맡기고 하느님께 당신의 도구로 써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어떤 역할이라도 심지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역할이라도 기꺼이 동참하도록 합시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거들거나 응원 못할지라도 흔들지나 않도록 합시다. (안동 이준건 신부님 강론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최상진 엘리사벳 자매님 6/13-6/15 까지(2박 3일간) 제 2 차 서중부 을뜨레아 재교육에 참석하십니다. 성령 충만히 주님과 좋은 만남을 이루고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 이 은순 아네스 자매님 6/15 일 오후 2 시 San Francisco 에서 공연으로 오늘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십니다. 아무쪼록 무사히 좋은 공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50-380-2236)
- 강 학순 로사 자매님, 따님 이사관제로 15 일 LA 에 가십니다.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 그동안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던 최효훈 토마스 형제님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6/23-25 일 사이에 영구 귀국을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성가대를 위하여 부어주신 사랑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멀리 떠나시더라도 주님의 사랑안에 하나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곡의 밤에 초대:** 김 인숙 세실리아 지휘자님이 활동하시는 메스코 코랄에서 “봄,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라는 주제로 6/15 저녁 7 시 30 분 산호세 주사랑 교회에서 가곡의 밤을 선사합니다. 참석하시어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소: 1555 Oak Ave, Los Altos, CA 94024 (산호세 주 사랑교회)
- 이상규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 6/7 (수)2 주간의 여정으로 네델란드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여행중에 주님 함께 하시어 하시는 일 잘 치루고 편안한 여행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김 순덕 짜리따스 자매님의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알림

6/29(일) 성가대에서 몬트레이 공소를 방문합니다. 동참하실 가족들은 금주(6/15 일)까지 각 팀장이나 임원에게 알려 주십시오. 사전 통보를 해야 하기때문에 **금일 한 접수합니다.**

하반기 임원 회의 소집

2008 년 하반기 성심 성가대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 회의를 소집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2008 년 6 월 22 일(교중 미사후) 성가 연습실**

참석자; 지휘자, 반주자, 각 임원, 각파트 장 및 필요에 의하여 요청한 사람.

의제; 1. 성가대 피정 (9 월 27 일 예정), 2. CD 제작전, 3. 성가대 복 4. 공소 방문
5. 기타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 복음 [마태 9,36-10,8]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달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불러 악령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 내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 열 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비롯하여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와 세리였던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대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 넘긴 가리옷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 열 두 사람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 가지 말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의 길 잃은 양들을 찾아 가라. 가서 하늘 나라가 다가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은 고쳐 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 주어라. 나병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 주고 마귀는 쫓아 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1분 명상

"나를 보낸 이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버림받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
하느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저렇게 버려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십니까?’

왜? 하느님께서 저렇게 버려진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한참을 원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버려진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바로 나를 파견하고 계십니다.